

# Platon의 知覺과 Psyche

李 昌 大

## <차 례>

- I. 머 리 말
- II. Platon 全思想과 관련
- III. 現代思想과 관련
- IV. Protagoras 知覺論
- V. Herakleitos 生成論
- VI. Platon의 Protagoras 知覺論과 Herakleitos flux 思想 批判
  - A. 知覺과 運動
  - B. 知覺의 對象
  - C. 感覺에 現象된 ‘質’.
  - D. 知覺에 現象된 世界
  - E. Protagoras의 ‘質’로서의 世界
  - F. Protagoras 眞理批判
  - G. Platon의 倫理意識에 依한 眞理觀
- VII. Platon의 Psyche

## I. 머 리 말

Socrates以前 自然哲學者들은 “밖의 對象世界를 파악하는 나 자신의 認識構造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제쳐놓고, “宇宙의 根源的 物質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直接的으로 思惟했다. 哲學의 始祖라고 하는 Thales는 “물”에서 萬物이 나왔다고 했으며, Anaximanes는 공기가 ἀρχή라고 주장했다.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이들 古代自然論者들은 하나같이 外界를 認識하는 우리 자신의 制約性 내지 構造를 分析함이 없이 外界의 根源的인 것을 탐구했다. Thales가 바로 앞의 우물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하늘의 별을 관측

했듯이 거의 모든 自然論者들은 그들을 둘러싼 現實問題가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 차리지 못했다. 哲學史에서 최초로 人間問題 내지 現實問題로 관심의 방향을 돌려 놓은 장본인이 Sophist들이다. 과거의 賢人 또는 哲人들이 너무나 自身들의 경험(감각)은 무시하고 오로지 思惟만을 강조하여 구체적 현실적 人間 자신의 문제를 등한히하고, 저편의 우주의 本質을 各人各色으로 헛되이 規定하려고 했던 自然論者들의 空利空論을 Sophist들은 무시하고, 具體的 現實的 人間自身的 문제를 능숙히 처리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을 追求하게 된 것이다.

Sophist들은 實生活에 使用價値있는 경험적 知識을 존중하고, 이 경험적 知識의 端初인 感覺을 重視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感覺을 Platon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과 Psyche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Psyche 構造自體의 分析으로 向하게 됨을 볼 수 있다.

## II. Platon 全思想과 관련

여기서 感覺이라함은 우리의 五官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Platon의 Theaetetus편의 感覺(αἰσθησις)을 가리킨다. 그리고 感覺과 知覺이 우리 自體의 겉 표면에서 成立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뇌속까지 도달하여 Psyche에 傳해져서 成立되느냐 하는 물음이 앞으로 나오지만 Platon은 分明히 後者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知覺은 우리의 身體的 感官에서 端初한다해도 결국 Psyche와는 떼 수 없는 관계임을 Platon은 여러 대화편(특히 노년기)에서 암시하고 있다.

Theaetetus편에서는 知覺의 認識作用을 否定하지만 Phaidros편 (249 B.C)에서는 오히려 眞定한 認識인 想起의 觸媒作用을 한다고 보아 知覺의 重要性이 논의되고 있다. Platon에 依하면 知覺에 依해 이루어지는 現象界의 세계가 사실은 原模型(εἶδος)의 “그림자”의 世界이므로 때로는 이 “그림자”에 Eidos와 비슷한 데가 있어 原型(idea)을 想起할 수 있도록 어떤 촉발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Eidos와 Eidolon의 現象界를 전혀 다른 世界라는 것을 Platon은 強調하고 있다(Politeia VI 권).

영원히 不變하는 idea들이 있는 存在界와 끊임없이 生成消滅하고 있는 生成界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Platon은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Platon의 前期思想 (Chorismos)사상이다. 現象界의 事物은 原型으로서의 idea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도대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들이다. 오로지 idea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영원히 不變하고 과거와 미래가 없

이 영원히 持續的으로 있는 idea들은 마치 Demokritos의 Atom들 처럼 상호 獨立體이며 그것 자체로는 도대체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Phaidros 편에 依하면 이 idea들은 하늘 저편에 있어 神들은 마음놓고 언 제든지 쳐다 볼 수 있지만 人間은 하늘나라에서 추락하여 지상에 충돌한 직 후 그 충격에 依해 idea를 망각하게 되었다. 生成界에 무상히 變해가는 어떤 事物이 idea에 닮은 점이 있다면, 인간들은 이 ‘비슷함’을 보고 idea를 想起 (Anamnesis)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idea를 우리의 感覺器官의 하나인 눈 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것(神이 아닌한 不能)이 아니라, 우리 Psyche가 옛적에 idea를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때 우리의 Psyche는 무언가 충만해서 永遠한 世界를 순간적이나마 느낄 수 있다. Platon에 依하면 이것이야말로 眞實한 認識이라하며 이때야 말로 眞知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Psyche가 idea들을 想起하는 일이야말로 生成界에 몸담고 있는(육체를 갖는) 인간이 어떤 意味에서 存在界와 接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想起로 인해 有限한 Psyche는 無限한 存在界를 그리워 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Psyche는 肉體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 단지 idea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지 神들 처럼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Psyche의 idea에 대한 Eros를 소위 Psyche의 上向運動이라 한다. 그러나 Platon은 “동굴의 비유”(Politeia 7권 참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굴에서 나와 찬란히 빛나는 太陽과 眞相을 본 哲人은 다시 동굴에 들어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肉體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Psyche가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 만은없다. 存在와 生成을 전적으로 분리시켜(χωρισμός) 그 관계(μετεχείν)를 부정 한다면, 生成界의 모든 것에 대한 規定(또는 言表)가능성은 없게 되고 生成界는 구제 불능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Psyche와 육체는 완전히 異質的인 것이 되어, 모든 生成하는 것들의 “나타남”(φαίνεται) 또는 知覺內容들은 모두 거짓이 된다. Platon에 依하면 우리 영혼은 存在와 관계하고 感覺은 生成을파 악하는데, Chorismos사상에 依하면, 우리의 “감각의 인식성”은 전적으로 부인된다. “知覺되어진 것” 즉 生成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 內容은 完全히 否定되고 “純粹한 Psyche의 운동”만이 認識이 된다. 다시 말하면 Chorismos 사상에 依하면, 知覺은 認識문제에서 도대체 否定되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純粹한 Psyche”가 成立하고, 그리하여 眞知에 도달 한다고 한다.

그러나 Platon은 後期作品들(Phaidros, Theaetetos Sophist, Timaios)에서 存在와 生成의 관계 맺음(Methexis)을論하고 그 관계맺음을 우리 Psyche가 수행한다 한다.

이 때의 Psyche는 自然히 生成界의 소리를 들을줄 아는 Psyche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Psyche는 우리의 “知覺”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Psyche이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볼 때 知覺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idea만을 사랑하고 이地上의 모든 것에 눈을 감아 버리는 Psyche와 우리의 現實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現實을 이해하려고 하는 Psyche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자를 편의상 “純粹한 Psyche”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後者는 生成界로서의 對象이 우리에게 비쳐진 것을 파악하므로, 前者의 能動的인 運動(生成界에 있는 어떤 것도 부정하므로)에 비하여 受動的(受容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Methexis사상은 바로 이 “순수한 Psyche”와 “감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Psyche”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前者에 依해 “存在”를, 後者에 依해 “世界”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Theaetetus편에서 Platon은 Protagoras의 知覺의 認識性を 否認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認識에 있어 知覺의 영향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림자(生成界의 사물)를 보고 그것의 原型(idea)을 想起하는 것이 認識이라 할때 감각과 상기와는 절대적으로 무관계 하지는 않을 것이다. Methexis사상에서 보면 어떤 意味에서 知覺內容은 Psyche의 素材(Stoff)로서 Psyche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Ⅲ. 現代思想과 관련

人間이 어렸을 때 부터 Psyche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idea세계를 想起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어려서 부터 成長하면서 수 많은 知覺을 경험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서야 비로서 Norm 또는 idea를 想起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laton은 우리가 認識할 수 있기 위해선 먼저 雜多한 知覺의 世界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Husserl의 *époche*처럼) 그래서 순수한 Psyche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生活의 여유 또는 한가로워야 한다고 한다. (Theaetetus 174 a.b) 이러한 순수한 Psyche에 비쳐지는 것이 idea다.

이러한 idea와 知覺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知覺된 것”은 Eidolon이요 idea는 Eidos와 전혀 다름을 強調한다. 그러나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원형을 생각한다면, 무언가 相關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역시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의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그림자를 보더라도 누구나 idea를 꼭 상기할 수는 없다. 용감하게 生成界의 사물을 끊고(부정하고) 동굴을 뛰쳐 나와 찬란히 비추는 太陽을 볼 수 있을 때 認識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Politeia VII 참조) 그림자의 세계를 박차고 나온다는 말은 곧 여태까지 感覺되어진 모든 內容을 否定

한다는 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Psyche를 깨끗히하여 Psyche에 비쳐진 眞相을 잘 볼수 있을 것이다. 이때 Psyche에 비쳐진 “眞相”과 “知覺內容”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일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 많은 經驗을 못한; 즉 學習을 못한 어린애의 Psyche에 이런 眞相이 나타날 수 있을까? 現代에 發展的認識論者인 Piaget 같은 사람은 이것을 否定할 것이다. 우리의 Psyche가 성숙할려면 수 많은 經驗 즉 知覺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發生學的으로 Psyche가 自己獨立的으로 성숙한다거나, 活動한다고는 볼수 없다. (J. Piaget; Psychology and Epistemology 참조)

Psyche를 성숙케 하는 것이 知覺이라 한다면 Psyche에 나타난 事物의 眞相과 知覺과는 어떤 관계가 있음직도 하다. Psyche가 活動할 때 이 運動의 結果가 事物의 眞相(idea)이라 한다면 이때 Psyche 作用의 어떤 所材로 知覺의 內容이 쓰임직 하다는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다. 또 Psyche가 항상 能動的作用(ποιεῖν)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受動的으로 어떤 규범(Norm Form)에 쫓아 움직인다면, 이때 知覺內容과 規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직 하다는 推理를 할 수 있다. 도대체 우리의 意識作用자체가 對象을 規定하느냐 아니면, 知覺이 쌓여 經驗을 이루어 어느선까지 성숙했을 때 우리 意識의 世界에 Norm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知覺을 할때 벌써 어떤 意味에서 어떤 規定(思考)이 가해진 內容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닌가, 또는 Psyche는 이미 對象世界에서 비춰준 어떤 영상들의 “기억”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知覺한다” 할때 이미 먼저 들어와 자리잡고 있는 “기억”에 依해 잠재적으로 은밀히 影響받고 있으며, 더욱이 그 기억은 벌써 Psyche의 構造에 따라 잠재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잡다한 통일성없는 “知覺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意識하지 않는 사이에 벌써 잠재적으로 어떤 先構造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Psyche와 知覺은 결코 상호관계가 없지않은 않다.

#### IV. Protagoras 知覺論

Thales가 하늘의 별을 관측하려고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물에 빠져 트라키아 아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古代 自然論者들이 너무나 바로 앞에 느껴지는 知覺에 대해 경시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原子論者인 Demokritos는 感覺을 통해서는 진실한 認識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Demokritos; prag. 11, 125). 그러나 이들 自然論者들이 하나같이 強調했던 思惟란 完全한 것이 었을까? 그들이 신뢰했던 思惟에 依해서 파악된 이 宇

宙의 根原物質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들 自然論者들은 똑같이 *αρχή*를 추구했지만, 결코 Psyche내용은 결코 같지 못했다. Protagora가 불척에 이들 自然論者들의 思惟에 依한 推象物이 믿을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自然論者들 自身이 人間이며 따라서 生動하는 現實에 살면서 느끼고 感覺한다는 事實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存在하는것 또는 非存在하는 것 모든것의 尺度가 人間이며 이 人間은 生動하는 現實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知覺”을 가졌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知覺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認識手段임을 말했다. Protagoras에 依하면 우리의 感覺現象에 나타난 것이 그대로 對象에 內在하고 있다고 한다. 찬바람 더운바람할 때 Protagoras에 依하면 바람 그 자체가 차갑거나 더운 것으로 단정 했다. 즉 그에 依하면 現象과 存在를 同一한 것으로 보고 現象外의 存在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부정한 것이다. 神도 지각할 수 없거나, 우리 人生이 너무 짧거나 하기 때문에 神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빨간 장미꽃을 보고 꽃자체가 붉다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色이란 것이 우리 主觀에 나타난 그대로 對象에 있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다. 각사람은 同一한 것에 자기 다른 知覺을 갖을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옳다고 한다. 各者에게 나타난(*φαίνεται*)대로 그대로 라고 한다. 나와 당신이 동일한 바람에 대해 나는 추움을 느끼나 당신은 따뜻함을 느껴 서로 相異한 知覺을 갖더라도 어느 한편이 틀리고 맞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知覺에 나타난 것이 그대로 對象에 있으며 도대체 知覺되어진것(*αἰσθάνηται*) 외에 무엇이 있다고 증명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Protagoras에 依하면 同一對象(Sache)에서 서로 반대되는 意見(Aussagen)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Protagoras; Prag. 6a.). 이 說은 Anaxagoras의 Pragment(I)에서도 모든 事物은 무한히 크기도 하고, 또한 무한히 작기도 하다는 理論과 비슷한데가 있다. 또한 이오니아 학파에서 個體들은 反對되는 것들의 혼합체라 생각했다. 특히 Empedokles 같은 이는 반대되는 힘에 依해 생성소멸을 설명하고 있다(Prag 17).

이러한 사상을 본 받은 Protagoras는 서로 반대되는 <性質>들이 個物에 병존(*εἶνα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同一個物에 서로 反對되는 主張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 原子論者들은 思惟에 依한 抽象에 依해 實在의 세계를 묘사한 반면, Protagoras는 그것을 感覺世界로 끌어내려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Protagoras에 依하면, 우리와 관계없이 獨立的으로 存在한다고 自然哲學者들이 생각하는 物質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난 (現象된 *φαίνεται*) 個物이라고 한다. Demokritos 같은 이는 Protagoras의 이와같은 主張을 부인한다.

우리 感覺에 反對되는 것들이, 나타난 그대로 *real*한 Atom의 세계에 있다

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어떤 個物에 상호 “反對” 주장이 있는 것은 우리의 편의성(χρησιμος) 때문이다. Protagoras에 依하면 永遠不變하는 그것 자체(αὐτο καθ' αὐτό)라는 것은 없거나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人間은 自己의 條件의 變化에 따라 相異한 시간에 相異한 것을 感知한다.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 人間에 나타나고,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人間에 나타난다. 同一한 것이 그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人間은 實在하는 모든것의 尺度라고 말할 수 있다. 人間에 나타난(知覺된) 모든것이 그대로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實在하지도 않는다. (Theaet 160c, 152c 현상된것=지각된것)

따라서 Protagoras에 依하면 對象은 우리의 感覺의 性質(φαντασμα, αἰσθητα ποιότης)들의 總合體以外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知覺은 存在하는 것 자체이다. (Protagoras; Prag 1) Russell의 이른바 Sense-data 外에 이 Sense를 超越한 어떤 論理的 構造 같은 것을 Protagoras는 인정치 않는다. 人間은 感覺에 나타난 內容外에는 어떤것도 알 수 없다. (마치 神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Protagoras; Prag. 4) 世界는 感官에 비쳐진 대로 存在하며 이러한 世界밖에는 다른 어떤 세계는 없으며, 있어도 알 수 없다.

## V. Herakleitos 生成論

Protagoras의 感覺으로 파악되는 世界는 모든 것이 變化 運動하는 世界이다. 나에게 나타난 “色이란 것을 분석해 보면 눈과 대상사이에 이루어진 상호운동의 產物이다”(Theaet 154a). 모든 것은 生成消滅한다(Theaet 153d). 사실 Protagoras感覺理論을 전개할 때 감추어진 前提가 바로 Herakleitos이론인 것이다. 우리의 감각들은 身體的條件에 따라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Protagoras 理論은 Herakleitos의 flux 사상을 前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것은 변한다”(Theaet; 180a 참조)는 Herakleitos 사상은 生成界를 설명한다고 Platon은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은 運動(場所의 移動 πορα) 質的變化(ἀλλοίωσις)를 하고 있다. 여기 있는 것이 조금후에 저기로 가거나 불에서 물로 물이 다시 흙이 되는 것(下道)같이 質的으로 變化해 간다(Herakleitos; prag. 69). “여기에 A가 있다” 하는 명제는 금방 있던 A가 사라지거나, A가 B로 되므로 진리를 말한것이 아니라 허위를 말한 것이된다. 밖에 있는 事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기관도 부단히 변해간다. Platon은 이러한 Herakleitos이론을 Protagoras의 知覺論에 적용하여, 對象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變해가면서 우리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고, 또한 우리 감각기관 자신도 부단히 變해 간다고 역설하고 있다.

Platon과 마찬가지로 Herakleitos도 이것을 깨닫고, 진실로 賢者라면, 이러한 變化속에 不變的인 것 즉 “變化가 가는길”(법칙 *λογός*)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원한 眞理인 *λογός*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者야 말로 진실로 지혜를 얻었다 할 수 있다(Herakleitos; Prag. 2). 이런 *λογός*를 파악할 수있는 者는 眞正한 認識에 도달한 者이며 진정으로 知慧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정한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을 探究하는 知慧이다. (Protagoras; prag 80, 71) 그러나 Platon은 Theaetetus편에서 이러한 Herakleitos사상중에 *λογός*사상은 다루지 않고 *παντα ρεῖ* 사상만을 Protagoras의 “지각이론”의 기초이론으로 사용한다. 사실상 Herakleitos 全사상은 Platon의 生成論에 국한 될 수 없다. Herakleitos *λογός*사상은 좀더 심원한 사상이다.

## VI. Platon의 Protagoras 知覺理論과 Herakleitos flux사상 비판

知覺되어진 것이 바로 存在한다는 Protagoras見解를 부정하고 存在하는 것은 時間的으로 不變하는 것, 따라서 現象界(感覺界)에는 없고 idea 세계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A. 知覺은 運動의 結果이다. 감각대상과 기관이 상호관계 한다.

이때 감각은 항상 同一한 “質”을 갖지는 못한다. Protagoras의 “지각주체”는 Psyche가 아니라 감각기관들이다. 이러한 감각기관들이 항상 “同一한 質”을 갖는다면 새롭게 變化되어가는 환경에 적응치 못할 것이고, 그런 감각기관을 갖는 有機體는 消滅할 것이다. 모든 有機體는 變化하고 生動하는 대상 세계를 쫓아 自己를 保存해야 한다. 감각기관은 항상 變化하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항상 자기자신도 變化해야 한다. Protagoras의 人間은 感覺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Theaet; 184d 156~156b 참조) 인간 본질 전체가 자꾸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만물의 尺度자체가 자꾸 變한다. Socrates도 인간이므로 인간 Socrates는 순간순간 달라진다.(병든 Socrates와 건강한 Socrates는 Protagora論理에 따르면 서로 다른 Socrates가 되어야 한다……얼마나 우수한 일인가!) 과연 순간순간 달라지는 人間이 萬物의 尺度라 자부할 수 있을까?

B. 知覺의 對象은 어떠한가?

우리는 “바람”을 知覺할 때 따뜻하게 느끼던가 차게 느낀다. 이때 우리는 이바람을 찬바람 혹은 더운 바람이라 일컫는다. Protagoras에 依하면 이바람은 <차거움>과 <더움>의 서로 反對되는 性質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Protagoras는 하나의 Sache에 서로 反對하는 言表가 가능하고, 또한 그 言表(Aussagen)와 Sache자체를 區別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진술이 가능하



다 할 것이다. 그러나 Platon은 바람과 우리의 지각이 마주칠때 이때 <차거움> 혹은 <더움>이라는 質(*ποιόσεις*)이 생겨나는 것으로, 質은 <바람 그 자체>가 갖는 本質(*φύσις*)과는 다른 것이라 본다. 本質로서 對象은 그 자체로 存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각과 대상이 만나서 생긴 質은 지각과 대상양자에 依存하고 있다. 이와같이 Platon은 *φύσις*와 *ποιότης*를 區別하고 있다. 즉 Platon은 우리의 知覺은 受動的(*πάσχον*), 對象은 態動的(*ποιούν*)으로 본다.

Demokritos도 밖에서 出發한 Atom이 우리의 눈에서 나간 Atom과 부딪쳐서 “色”같은 간주관적인 것이 發生한다고 보고 있다(Theat, 156. e157a) Platon은 “색”과 같은 것을 *φύσις*로 보지 않고 *ποιότης*로 보고 있다는 점에 Demokritos와 一致한다.(Demokr. prag. 7,9,11) Protagoras가 말하는 바람의 성질은 Platon에 依하면 사실 이런 *ποιότης*에 불과한 것이다. Platon은 <對象 그 自體의 세계>와 <感覺에 나타난 世界>를 구별하고, Protagoras가 말하는 세계는 후자에 속한다고 했다.

### C. 感覺에 現象된 “質(*ποιότης*)”은 어떤 것인가?

Platon은 “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6이라는 수는 4에 비하면 크지만 12에 비하면 작다(Theat; 154e) 同一한 6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

“나”, “Socrates”가 지금은 너 Theaetetus보다 크지만 비록 “나” “Socrates”는 조금도 줄어지지 않더라도, 네가 더 成長하면 앞으로 네가 나 보다 더 커질 것이다. “6”이라는 수, “Socrates” 그 自體로는 變하지 않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크기도하고 작기도하다. 이와같은 <큼> <작음>같은 것이 “6” “Socrates”의 “質”이다. 感覺에 現象된 質은 바로 이와같은 質로서, 자체적으로 存立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他”와 비교되면서 (관계하면서) 있는 것이다.

### D. 그러면 이러한 質로서의 世界, 즉 感覺 또는 知覺에 現象된 世界는 어떠한가?

Platon은 이런 世界가 바로 生成하는 世界라 한다. 즉 Herakleitos의 *παντα ρει*라는 명제가 그대로 드러 맞는 世界이다. 우리의 知覺作用에 依해 드러나진 對象世界인 것이다. 對象 그자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對象이 우리의 感覺器官에 부딪혀 파악 되어서 생겨난 世界인 것이다. 自體的으로 獨立해 있는 世界가 아니요 파악되어진(비추어진) 세계 즉 *γίγνεται* (gewirden)된 세계인 것이다. 우리의 Psyche가 能動的으로 파악한 世界가 아니라 파악 되어진 知覺의 세계인 것이다. Protagoras는 우리가 알 수 있는 世界는 바로 이런 知覺의 세계 뿐이요 이것을 超越해 있어 知覺으로는 파악불가능하고 오로지 Psyche로서만이 認識 가능한 idea世界(혹은 그 自體의 世界)는 언급하지 않

고 있다. Protagoras는 古代 自然論者들이 한결같이 <감각>을 경시하고 思惟단을 존중하여, 各人各색으로 世界(또는 宇宙)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주시한 것이다.

古代自然論者들은 自己에 가까운 現實문제보다 멀리 떨어진 문제, 혹은 전혀 人間事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와 헛되이 씨름하는 것을 Protagoras는 통감한 것이다. 現實生活에 도움과 조력을 주며, 더욱 現實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에 있어 實用的인 知覺에 依한 知識, 즉 경험을 중시했다는 점에 Protagoras의 공헌이 있다(Platon의 Protagoras편 참조). Platon은, Protagoras 같은 Sophist들의 人間中心的 思想과 自然論者들의 宇宙論의 思想을 綜合하여 이 양극적 사상을 자기의 全體係속에 흡수하여 哲學을 세운 것이다.

E. Protagoras의 “質”로서의 세계 즉 感覺으로 파악되어진 現象의 世界는 Psyche의 能動的파악(想起)에 依한 idea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Protagoras가 파악한 世界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Platon的 意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變化하고 運動하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므로 生成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어떤 것이 되어지고 있다”로 위의 명제를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尺度이다”라는 명제는 “지각의 영역에서 人間은 生成하는 것의 尺度이다”라고 제한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生成界에 있는 모든 것이 자주 변해가는데 인간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 왜냐하면, Protagoras의 人間은 “감각기관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나 Platon은 여기서 이것을 부인한다.

인간은 단순히 감각기관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Psyche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Theaet 184c에서 우리는 눈으로써(ὄψ)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δία) 본다고 한다. 감각기관 자체(눈)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Psyche가 지각한다(Theaet 186a~187a)고 Platon은 이야기한다. 現代的 意味로 지각도 우리의 “뇌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Platon의 지각도 Psyche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다. 存在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의 主體는 “Psyche 그 자체”이요, 그렇지 않은 Psyche는 知覺하고 있는 Psyche이다. 우리의 Psyche를 잘 파악해 보면 知覺에 依해 現象된 世界가 전개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否定하여 모든 감각적 요소(자연적요소)를 제거하여 純粹 Psyche에 도달할 때 idea가 드러나는 것이다.

idea세계가 實在하느냐 않느냐는 여기서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認識作用上 感覺에 의해 드러난 世界와는 다른 것이 확실하다.

F. Theaet. 155a에서 Platon은 존재는 그자체가 同一하게 있으므로 항상 同一하게 存在하며, 결코 生成되어지지도 않았고 또 生成되지 않는 永遠不變

의 것이라 말한다. 끊임없이 變하는 感官에 依해 파악 되어진 “質”은 결코 위의 存在性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認識이란 對象에서 眞理를 發見하는 일인데, 부단히 變化하는 “質”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음을 Platon은 강조한다.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난다” (지각된다. 現象된다) (*Ti phainetai emoi*) 명제는 Protagoras에 依하면 그것이 나에게 <明確性>을 준다고 한다. 사실 어떤 것이 나에게 지각 될 때 내가 지각하는 것은 어떤이도 똑같이 지각할 수 없다는 意味에서 나의 知覺對象은 나에게 個人的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對象(또는 質)도 지각자가 다르면 다르게 나타난다. 나에게 個人的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對象이 나에게 特異하게 나타난다는 意味에서 나에게 明確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知覺이 知覺者에게 明確性을 준다는 점에서 Protagoras와 Platon은 모두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Protagoras가 知覺은 나에게 <명확>하므로 또한 <眞理>라고 한 점에 論難이 發生되는 것이다. Platon은 Protagoras의 *phainetai*에는 명확성은 있어도 <참>은 없다고 한다.

Platon은 Protagoras의 지각이론과 Herakleitos의 flux이론을

『a. 主體(감각기관)와 對象은 서로 變하므로 한 知覺者는 同一한 知覺이나 感覺을 2번이나 갖을 수 없다.

b. 어떤 두 知覺者도 同一한 對象에서 嚴密히 똑같은 知覺을 얻을 수는 없다.

c. 어떤 감각대상도 知覺에서 獨立해서 實在할 수 없다』로 요약하고, 存在의 가장 본질적 속성인 영원성이 결핍해 있음을 말한다. 자구변하는 데서는 “시간적지속” 또는 “있음”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있음”이 “없음”이 되어(存在와 非存在의 혼동을 야기) 도대체 참(眞)을 발견할 수 없다. Theaet. 155a에서 存在의 3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Protagoras 知覺論을 전개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Protagoras가 말하는 知覺에 나타난 세계(現象界)는 <存在>의 가장 本質的속성인 “不變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참”(true)은 오직 이러한 “不變性”을 갖는 存在界에서만 찾아 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G. Protagoras에서는 “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다른사람을 설복시킬 수 있는 설득력있는 意見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은 思惟에 依한 “本質” “存在”같은 추상적인 것보다 現實에 즉각적으로 <有用性>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不變의인 것보다 一時的인 것에 집착하고 “선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중이 생각하는 바의 “정의” “선”이 무언가 하는것이 그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정의” “선” 같은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타인을 설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 내지 기술이

## Platon의 知覺과 Psyche

문제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Protagoras 같은 Sophist들은 Athene 청년들을 사회적인 正義나 도덕심 보담, 不正과 惡을 화려한 말로 꾸며 남을 說服시킬 수 있는 변론술(또는 수사학)에 관심을 쏟게 만들었다. 개인의 부귀영달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선 社會的 强者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대화술이 이들에게 중요하였다. Socrates는 이에 반기를 들고, 개인의 부귀공명보다 국가나 사회적 이익을 앞세우고 영원히 불변하는 “정의” “선”등을 追求하였다. Socrates의 제자 Platon은 자기의 認識理論 저변에 倫理意識이 잠재되어 있어 Protagoras의 知覺理論을 批判하는 것이다.

결국 Protagoras의 <知覺되어 진것>은 Platon의 입장에서보면 <明確性>만을 나타낸 것이지 결코 영원불변하는 <存在性>은 갖지 못한 것으로 결정 짓고, 이 知覺에 나타난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진리는 <明確性>外에 起時間的인 <存在性>을 含有하여야 하는데 知覺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 VII. Platon의 Psyche

Theaet. 184d에서 우리 인간은 마치 무수한 병정들을 속에 갖은 Troy목마처럼, 무수한 <지각내용>을 단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Platon은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수한 지각들은 하나로 즉 Psyche에로 합류하여 있다. Psyche는 이런 상이한 지각내용을 통일하여 그들속에 공통적인 것을 파악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것중 最高의 것인 “存在” “非存在” 또는 “하나”같은 것들도 위의 지각을 통해서 파악된 것일까? 위와같은 것들은 육체의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Psyche자체를 통해서 파악됨을 Platon은 암시하고 있다(Theat. 185d,e). 여기서 Platon은 육체적기관을 통하여 파악(현상) 되는 것과, Psyche자체가 파악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前者에서 知覺이 성립하고, 後者에서 最高의 것인 <존재>등이 파악된다.

Psyche 그 자체가 자기자신만을 통해서 추구하는것이 存在임을 Platon은 강조한다. 그러나 Theaet 186c에서는 이와 다른 말을하고 있다. 육체의 기관을 통해서 Psyche에서 이루어진 知覺은 出生 때 부터 시작되나, 그러나 <存在>같은 것은 많은 노력, 교육을 통해서 오랜 時間이 걸려야 파악됨을 암시하고 있다. 즉 <存在>라는 것이 어린애 Psyche라도 쉽게 그 自體의 活動에 依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知覺에 依한 오랜 經驗이 先行되어 Psyche가 성숙되어야 함을 Platon은 암시하고 있다. Phaidros 249c에서는 수많은 감각들로부터 그들을 論理로써(λογισμῶ) 하나로(εἰς ἓν)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idea를 상기(ἀναμνησις)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다. 그러고보면 우리의 <純粹 Psyche 자체의 능동적 活動自體>라 볼수 있는 idea의 想起는 벌써 以前에 <지각되어진 것>들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Chorisimos 사상은 純粹 Psyche만을 강조하여 모든 <知覺되어진 것>들의 否定을 강조한다. 그러나 Phaidros같은 후기작품에 이를수록 Methexis 사상으로 기울어져 <存在>와 <生成>의 관계를 다루게 된다. 生成界를 구원(또는 定立) 可能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의 Psyche에 나타난 <지각되어진 것>들을 전적으로 否定해서는 生成界를 理解할 수 없을 것이다. Psyche의 想起活動이야말로 Psyche의 idea에 대한 영원한 Eros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存在>로 向할라고 하는 Psyche의 몸부림도 그것이 육체라는 쇠사슬에 매여있다는 사실(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에 制限이 있다. 人間은 역시 生成界에 몸담고 있기에 이 生成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Sophist들처럼 個人主義的이고, 非正義的인 處世術만을 따를 때 生成界는 점점 혼란과 비극으로 向하게 될 것이다. Platon은 이러한 倫理意識을 저변에 갖고서 생성계의 것들을 참된 實在인 idea에 따르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Platon은 우리의 知覺과 영원한 idea의 想起와는 어떤 意味에서 관련성이 있어야 Methexis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idea가 감각으로는 파악불가능이지만, 현상계의 “美的인 것”을 보고 “미차체”(美的 idea)를 상기한다면, 지각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Phaidros; 250e).

전통적으로 순수 Psyche 자체의 능동적 活動의 idea에 대한 想起는 강조되었으나, 수동적으로 지각 되어진 지각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Psyche는 경시되어왔다. 認識이 기본적으로 밖의 對象世界의 眞相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Psyche 자체만의 獨自的인 構成物로서의 對象世界는 어떤 결함(부족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認識이 Symposium에 나오는 Diotima의 Eros처럼, 完結的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된 認識에 도달하려는 끊임없는 追求로서의 認識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世界>의 地平도 더 分明해져야 하거나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實在>를 더욱더 分明히 그리고 오래도록 所有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認識에는 <순수 Psyche의 능동적활동>이 本質的이다. 그러나 이러한 Psyche는 원래 對象世界(可視的이거나, 可知的이거나)의 現象인 知覺에 은밀하게 영향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知覺作用자체가 이미 과거의 <기억>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미 Psyche가 개입 되어 있다고 생각할때, 우리에게 <現象되어진 世界> 자체가 벌써 잠재적으로 Psyche의 構造에 쫓아 우리에게 現象되어진 것이 아닐까? 곧 우리에게 <나타난세계>는 이미 우리 모르게 우리의 인식기구의 잠재적 구조에 쫓아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知覺한다 할때 <수동적으로 지각 되어진 지각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Psyche>가 이미 관련해 있다

## Platon의 知覺과 Psyche

고 생각해 볼때, 知覺內容 자체는 Psyche의 構造를 잠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Psyche와 知覺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認識에 있어 <知覺되어진 것>들의 分析이야말로 Psyche의 잠재적 構造(혹은 先構造)의 파악의 길이 아닌가? 또한 이 <Psyche의 잠재적 구조>야말로 오랜시간에 걸쳐 경험을 쌓아 성숙되어지는 과정에서 Psyche가 apriori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져 있는 세계(생성계)가 이미 <Psyche의 잠재적구조>에 쫓아서 現象된 세계라 생각할 때 이미 生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관계 맺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Psyche가 存在와 生成을 意識적으로 관계 맺기 이전에 이미 우리앞에 드러난 世界는 그 内部에 <存在性>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知識에 있어 知覺의 중요성을 예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John Burnet, Platonis opera. Oxford. 1962.
2. John Burnet, Greek philosophy. Macmillan. 1955.
3. F.M. Cornford. Plato's theory of Knowledge, Routledge. 1960.
4. N. Gulley, Plato's theory of Knowledge, Methuen. 1962.
5. E. Hoffmann, Platon. Rowohlt. 1961.
6. H. Diels,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Rowohlt. 1957.
7. F. Schleiermacher, Platon Sämtliche Werke, Rowohlt. 1959.
8. J. Piaget, The Psychology of the Child, Routledge. 1969.